

SOCIETY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재활용 품목별·요일별 수거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쾌적한 도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11일 단독(공동) 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품 품목별·요일별 수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개 동에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요일별 수거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단독(공동) 주택과 상가지역의 경우, 재활용 전 품목 혼합 배출되고 공단에서 한 번에 수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섞이고 부서져 자원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재활용 선별장의 낮은 선별률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단에서는 재활용 품목별·요일별 수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1단계 방안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제해 운영한다.

시범 동은 2개동(풍암동·화정2동)이며 자체계획 수립, 배출방법 홍보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시범운영 기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의 보완점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시범 동을 확산한다.

윤용성 기자 yj404@gwangnam.co.kr

태풍·풍랑·해일...해양기후 체험 '실감나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가보니

5개 상설전시관 구성...가상현실 '특수영상관' 인기
다양한 기상현상 체험...가족 단위 방문객들 줄이어

"태풍, 풍랑, 해일 등 기상이 악화되면 바다 상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1일 오전 광주지방기상청 출입기자 간담회가 열린 여수엑스포 부지 내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지난해 12월21일 문을 연 이곳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6번째 국립기상과학관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후와 연관된 다양한 기상 현상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연면적 5376㎡, 지하 1~3층으로 이뤄진 해양기상과학관은 바다와 기후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며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해상기상'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풀어낸다.

때문에 아이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크게 5개의 상설전시관으로 구분된다.

1관은 날씨의 기본 원리를 신체놀이를 체험하는 날씨놀이체험관, 2관은 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지난해 12월 21일 개관해 바다의 기후변화에 대해 태풍만들기, 태풍·파도 강도 체험, 관측 등의 다양한 체험형식으로 남녀노소 인기를 끌고 있다.

풍과 풍랑, 해일을 심층 체험하는 해양기상현상관으로 꾸며졌다. 3관은 바다 날씨를 관측하는 원리와 장비를 체험하는 해양기상관측관, 4관은 해양과 기후의 연관성, 기후감시요소,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을 이해하는 해양기후변화관이다. 5관은 빗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힐링하는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에 위치한 날씨놀이체험관에서 시작해 3층 해양기상관측관과 특수영상관을 체험한 뒤 1층 미디어아트 공간까지 관람하는 시간은 약 40분. 직원의 해설까지 곁들여지면 넉넉잡아 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게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양기상현상관은 태풍의 강도

에 따른 바람체험,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과학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인 3층 특수영상관은 선착순 예약을 받을 정도다. 관람객들이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지구가 생겨난 과정과 바닷속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바다 날씨를 체험하는 과학관이 생겨 매우 뜻깊다"며 "해양기상과학관이 기후 변화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다양한 세대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광주전남 건설노조, 21일 총파업 예고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오는 21일 건설현장의 불법고용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노

동자의 임금체불 추정액은 146억원에 달하며, 불법 도급 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고용 질서가 파괴됐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적인 임금 삭감과 체불, 단체협약 미이행의 근본 원인은 원청사의 최자가 낙찰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청사가 단체협약 이행을 직접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



한빛1, 2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4주기를 맞아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한빛1, 2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회원들이 탈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112·1332’로 신고하세요”

전남도, 가짜 카드 배송기관 사칭 등 사례 분석 홍보

전남도가 공공기관이나 카드배송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홍보하고, 금융교육과 소비자상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총 1532건이나 되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활용되는 '가짜 카드 배송기관 사칭'은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 후 위조된 실물 카드를 직접 배송하고,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에게 직접 전화하게 해 자금이

체를 유도하는 등 그 접근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 연령별 분석 결과 50대 피해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3.1%, 20대 이하가 25.3%로 순으로 나타나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도민의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도-시군 누리집에 홍보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계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시군-소비자단체-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령자 등 피해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피해예방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모르는 전화를 받았을 때 금융 관련 요청이 없으면 즉시 대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112(경찰)나 1332(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한 후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꿈과 희망을... 동구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

음악특화시설 조성·복지정책 등 54억원 투입

광주 동구가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소년 관련 분야별 예산은 총 54억1000만원으로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9억5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20억6000만원,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24억원 등이다.

동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통기타 있는 행복교실' 사업 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

또 광주 최초 청소년 음악특화시설 조성을 위해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

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청소년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 지원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중장기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운영한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방과 후 이카데미, 청소년 동

아리 활동, 진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중장기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고위기·은둔형 청소년,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구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임택 청장은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과 청소년 정책 지원은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가치 있는 일이다"며 "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모빌리티학과**
- 항공관광서비스학과**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 스포츠경영지도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 군사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소방행정학과**
- 의약관리학과**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 글로벌실버케어학과**
- 글로벌조선학과**
-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 국제학과**
- 글로벌디자인학과**
- CCO(콘텐츠경영)학과**

CHODANG UNIVERSITY 초당대학교